

시인의 마을

저 별을 그리면서 걸어가는

꿈이란 별을 보고
걸어가는 것과 같다
저 하늘에 떠 있는 별
달을 수 없는 멀리 떨어져
있더라도
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만
하는 길
그래서 가는 것이다
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다
꿈은 저 멀리 있는 별이 아닌
저 별을 그리면서 걸어가는
과정이라는 길

시선을 뒀다

누구나 저마다의 다양한 꿈이 있다.
총화성회 주관으로 '꿈 키우기'
프로그램을 운영하다며 시 5편을 부
탁해 왔다.



박 여 범

용북중학교 · 시인
문학박사 · 문학평론가

임무 중의 세 번째가 교감 선출된
의 시를 한 편 암기하는 것이라고
한다. 그래서 고민하다가, '꿈' 외 4
편의 시를 학생회장에게 건넸다. 주
제는 고민 없이 '꿈 키우기'의 '꿈'
을 시작으로 써 내려갔다.

아이, 어문 누구에게나 / 꿈이란 별
을 보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/ 저 하
늘에 떠 있는 별/ 달을 수 없는 멀리
떨어져 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/

꿈다 보면 갈 수 있는 거려다. 딱히,
불가능한 기리도 아니다. 다음각기
나름이다.

시인은 꿈을 / 다가가야만 하는 길
그래서 가는 것이다/ 그리고 깨달았
으면 좋겠다/로 누구나 이룰 수 있
음을 소망하고 있다.

그런데도 꿈이 없는 다수에게 / 꿈
은 저 멀리 있는 별이 아닌/ 저 곁을
그리면서 걸어가는 과정이라는/ 것

을 강조하고 있다.

그렇다. 시인의 표현처럼, 꿈이란
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
갈. 그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간직
하면서 소중하게 준비하다 보면 이
룰 수 있는 것이 꿈이란 것을 잊지
않았으면 좋겠다.

시가 가면 암기하기가 힘이 된다.
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찌했는
가.

너군대나 눈으로 시를 보면 우리
아이들이 아닌가. 눈 맞추기가 필요
하다.

그래야 나름 10여 개의 임무 중
홀 가늠한 임무가 되지 않겠는가. 나
다. 내 시의 영향력보다 중요한 것
은 임무로 시를 암기하고, 눈에 담
으려는 녀석들의 대견한 선택 때문
에 결코 흥이 났다. 최근에 느껴 보
지 못한 이 짜릿함을 표현한 것이
없다.

사설

우주 개발 경쟁 시대

우주 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쟁
이 본격화되고 있다. 최근 우리
자체 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쏘
아 올리면서 우주산업(宇宙產
業, space industry)에 대한 관심이
커지고 있다.

그 동안 국내 우주 산업은 정
부와 기관이 주도하는 공적인
영역이었다. 그러나 최근 민간
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'뉴
스페이스' 시대가 열렸다.

과거에는 우주 산업을 정부나
기관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
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변화했
다.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
X의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다.
이 업체는 올해 8월 세계적인
우주 인터넷 기업에 3억 달러를
투자했다.

지금까지 궤도에 올린 위성만
350기가 넘는다. 위성의 성능
또한 날로 발전하고 있다.

이 업체가 만든 위성은 600km
상공에서 30cm 크기의 작은 물
체도 가려낼 수 있다.

기술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
7,500억 원어치 위성을 해외에
수출했다.

스타링크 프로젝트는 굉장히
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. 전
지구로 위성이 커버하는 망으로
만들겠다는 포부다. 1957년 스
푸트니크가 발사된 이후에 지금
까지 발사된 위성의 수가 대략
9,000개 정도다.

스타링크 위성들은 수명이 다
하면 저궤로 어떤 추력을 사용
해서 지구로 떨어지도록 만들었
다. 민간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
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주 연
구나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
가 될 것이다.

자금은 전 세계 기업들이 펼치
는 우주 개발 경쟁 시대다. 우
리 기업들이 우주산업 생태계를
주도할 수 있도록, 정부는 누리
호 개발 과정에서 항공우주연구
원이 확보한 기술들을 민간에
이전할 계획이다.

우리나라는 경쟁을 가지고 있
는 4차 산업혁명 과학 기술 분
야를 우주 산업과 접목을 해야
한다.

그렇게 되면 국내에도 민간이
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
리지 않아 도대할 전망이다.

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구테흐스 UN사무총장, 케임브리지서 명예 학위



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일(현지시간)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은 후 자리에 앉아 있다.

"주삿바늘 안 불래요"



3일(현지시간) 미 텍사스주 에딘버그의 에딘버그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 8세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가 전날 5~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-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하면서 이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.

은행 사칭 불법스팸 급증

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이 급
증하고 있다. 불법 스팸은 시중
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
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
인과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게
전화 금융사기, 문자사기 등 금융
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다.

이들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
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 마감일
임박한 것처럼 말한다. 올해 상
반기 접수된 의심 신고만 46만
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
배 이상 늘었다.

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
내놨다. 스팸 발송자가 대량의
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
유선·인터넷 전화 가입 회선
수를 개인은 5개, 법인은 종사
자 수로 제한한다.

불법 스팸으로 확인되면 적발
된 번호뿐만 아니라 보유한 모
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기로 했
다.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
처벌도 강화한다.

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
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
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
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

신강법 개정을 추진한다.

현재 스팸 문자는 70% 이상이
KT를 포함해 상위 3개 문자 발
송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통
되고 있다.

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이들 업
체의 내부 노력이 시급하다는
지적도 있다.

스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
만 새로 늘어나는 스팸을 감지
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. 악성
스팸 발신자에게 서비스 제공을
거부하는 등 스팸 메시지 최소
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
한다.

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국
제 불법 스팸도 증가할 것으로
예상된다. 모니터링을 강화해야
할 것이다.

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 및
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,717
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,966만
건으로 15% 증가했다.
저축은행, 카드사 등 제2금융
권으로 사칭 문자가 확대될 수
있다.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
호까지 통신사 스팸 차단 시스
템에 등록하기 바란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: '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' (A platform for humans who bring courage and hope). It includes a quote from the editorial team and a commitment to providing quality content.